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 오느니라

본문: 요한복음 6:41-51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면 믿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주권적인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의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I.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서 우리를 믿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진리를 사모함이 강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운명주의에 빠지기 쉽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서로 상충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힘써 주님을 찾고 믿어야 하며,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은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깊은 감사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확신이 넘칠 것이다.

II.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

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 거렸다고 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 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 거린다는 것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외냐 하면 우리의 이성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얼마나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 봐야 부패한 우리의 생각은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 할수도 없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 하고자 하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거침 돌은 자기 생각, 자기 결정, 교만이다. 이것은 주제 넘은 생각이며 부패한 우리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믿게 된 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수군 거리는 불평 스런 생각, 원망을 버리고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항상 자기 생각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았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된 신앙 선배들의 책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그들이 결코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깨달음이 둔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겸손하게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게 되며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 깊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코 내가 잘나서 이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Ⅲ.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했다(44).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신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 온다고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자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본자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 곧 예수님 만이 아버지를 본 자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배울 수 있는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45)”이라고 말하였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4장 13절(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을 인용하셨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새 언약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 하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 31:33-34. 그러나 내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으로 부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첨가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반항적인 의지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신가를 보기를 원하도록 만드신다. 그는 우리의 의지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신다.

이에 대한 예로서 요한복은 7:16-17절을 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 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의 의지가 잘 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가 반역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맹목적인 반발심을 버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 인도하는 방법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6-17).

하나님은 베드로의 진리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 마음을 가짐으로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도우셨다는 것이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항상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는가? 확신이 넘치는 신앙을 갖기 원하는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